

## 지도자 및 교원\_수기-12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	

사례명	학업중단 위기학생, 가디언즈 오브 더 스쿨로 학교의 수호자가 되다!					
응모자	학교	○○고등학교	직책	교사	성명	○○○
학업중단 위기원인	교권침해, 학교폭력 가·피해, 가정 불화, 선도, 청소년 범죄 등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일자(기간)	‘10.03.01.~’24.10.10.(11.1-2, 17.8.-18.2. 제외)					
<p>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 교육 전담강사로 7년여 활동하며 매년 1,200여 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를 만났다. 교육을 하며 느낀 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의 불화에서 시작되어 학교폭력 가해나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기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 교육의 내용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과 처벌 즉 응보적 정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학생과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에 중점을 두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일부는 부모와 원수 관계와 비슷한 상황까지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 부모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는 사춘기라는 이유로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가 낳은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떼어낼 수 없기에 서로에게 편지 쓰기, 허깅, 가족 약속 만들기, 세족식 프로그램이 끝나면 부모와 아이의 모습은 놀랍도록 변해있었다. 처음에 서먹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며 귀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녁 5시부터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의 피로가 사라짐이 느껴졌다. 부모와 자녀가 처음 만났던 신생아와 초보 부모의 첫 마음을 되새겨 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이수 학생의 학교폭력 재발률이 1%대에 그치며, 그 효과를 증명했다.</p> <p>학생과 부모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 회복 프로그램인 패밀리 데이를 기획했다. 학교폭력 가해, 교권 침해, 흡연, 음주 등 일탈 행동으로 낙인찍혀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기에 학교에 대해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많았을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가 벌어진 아이와 부모를 위해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p> <p>지역사회를 활용한 장소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식사하고,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용을 담은 영상편지를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볼 수 있게 했다. 영상편지 속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아이와 부모는 만남의 장소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그동안의 상처가 한순간에 봉합되었다. 이후 손을 잡고 야경을 감상하며 못다 한 말을 나눈 아이와 부모는 어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첫 모습과 달리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고 대화하는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패밀리 데이 이후 학부모가 학교를 대하는 자세, 학생이 학교생활에 임하는 자세가 180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못했던 학부모는 단 한 번의 가족 회복</p>						

기회를 통해 학교와 아이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부모가 변하니 아이도 꿈과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며, 학업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도전하는 아이로 탈바꿈하였다.

#### - 소속감과 애정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가디언즈 오브 더 스쿨 동아리 활동

슈퍼 히어로 영화인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의 주인공들은 다양한 개성과 함께 저마다 한 가지 이상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각자의 사정으로 우주 감옥에 오게 된 주인공들은 그곳에서 의기투합하여 거대 악에 맞서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가 되었다. 영화를 관람하며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지나감을 느꼈다. 학업중단 위기, 학교폭력 가해, 교권 침해, 음주, 흡연 등 일탈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들을 하나로 모아 동아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즉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자율동아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학교생활에 힘겨워 하던 학생들을 하나 둘 찾아 가디언즈 오브 더 스쿨을 결성했다. 그중에는 “내가 왜 애랑 같은 취급을 당해야 하느냐”라며 동아리 가입을 거절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학업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동아리에 함께 넣으니 이내 너도 나도 가디언즈 오브 더 스쿨에 가입을 희망하게 되었다. 가디언즈 오브 더 스쿨 활동은 점심시간에 주로 이루어졌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아이들, 누군가를 돕기 위한 손길을 내밀어 주고 싶어 하는 아이들, 다양한 개성을 지닌 아이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교내를 산책하며 그날 겪었던 어려움을 들어주었다. 처음에는 “그냥 그래요.”라며 통명스럽게 답을 하던 아이들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어느덧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다. 학교나 가정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낄 기회가 없던 아이들은 가디언즈 오브 더 스쿨 자율 동아리를 하며, 점차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거친 행동과 언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활동을 하다 보니, 목표 없이 살았던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팔굽혀펴기와 턱걸이를 일정 이상 하는 목표를 동아리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게 하고, 지도 교사인 나도 학생들과 함께했다. 기존에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턱걸이 20개 이상, 팔굽혀펴기 80회(2분)을 기준으로 체력 여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책정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OO구청에서 지원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예산으로 인바디 측정기를 구입하여, 목표 달성 정도와 신체 변화를 수치화하고 학생들에게 줄 상품을 구입했다.

동아리 학생들과 점심시간마다 함께 운동하기 시작한 1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 뒤편 체력 단련장은 철봉과 벤치가 놓여 있었으나, 그 뒤 사각지대가 있어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다. 순찰을 하고, 학생들에게 부탁을 해도 흡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에서 단 한 건도 흡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점심시간마다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팔굽혀펴기와 턱걸이를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저마다 수업 시간에 어려웠던 일, 가정에서 어려웠던 일들을 함께 나누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다. 턱걸이를 1개도 하지 못했으나 사제동행 운동 활동을 통해 턱걸이를 10개나 하게 된 아이도 있었고, 팔굽혀펴기도 1개도 하지 못했던 아이가 40개를 넘게 한다고 자랑을 하는 아이도 있었다. 칭찬과 다독임에 굶주려있던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에 “할 수 있다!”라는 ‘느낌표’를 더해주자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 가디언즈 오브 더 스쿨을 만들 때, 학업중단 위기, 학교폭력, 흡연, 음주, 교권침해 등의 낙인으로 점철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소속감과 위로, 공감을 위해 동아리를 만들었기

에 지도교사인 나조차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저 학업중단이 발생하거나 학교폭력, 선도, 교권침해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면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끌어안고 있자 하며 시작했던 가디언즈 오브 더 스쿨 활동은 그해 학업중단 학생 ‘0’명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덧 학교 전체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교사로서 나의 삶 또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 -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교사의 초심, 한 번의 교직 어떻게 살 것인가?

교직에 임하는 나의 초심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이다. 임용시험 면접에서 교직에 임하는 각오를 말하며 소리 내어 울었고, 학생들을 위한 강한 마음을 보여주어서 인지, 1차 시험 성적이 저조했음에도 그 해에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마음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과한 나머지 동료 선생님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다. 학교에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존재한다. 경력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며, 남성, 여성 성별도 다르거니와 학생들과의 접근 방법, 수업방식 등 모든 것이 다르기에 그만큼 존중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 받았을 때, 저항감도 강하다.

가디언즈 오브 더 스쿨 동아리를 운영하던 중 한 선배 교사가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였다. “OO이는 선생님 앞에서만 잘하지 다른 선생님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반 아이들이나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것들 학교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말에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했던 것들, 개인 시간마저 쪼개가며 나누었던 상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함께 했던 운동, 아이들과 산책 등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짐이 느껴졌다. 마침 그다음 날이 일생에 한 번뿐인 내 결혼식 날이었고, 결혼식 전 날 동료 교사의 말에 지금까지 해 온 내 교직 신념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신혼여행을 가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다짐을 했다. “이제 정말 우리 반 학생들만 챙기고, 다른 반 학생들이 학교폭력 징후에 노출되어도 해당 담임교사에게 말하고, 나는 관여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돌아왔다. 학교에 돌아오니 가디언즈 오브 더 스쿨 동아리 학생들이 나를 반겼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저희 안 보고 싶었어요?” 등 내가 없는 동안 학교에 있는 것이 너무 허전했다는 학생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학기 초 교권침해에서 비롯된 낙인으로 학업중단속려제까지 받았던 OO이가 나를 계속 잡아끌자 독한 말이 튀어나왔다. “나한테 달라붙지 말고 너희 담임선생님한테 가! 아 좀 가라고!” 험한 말에 또다시 상처를 받았을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아파지지만, 아이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내 반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걱정하실 만한 일 절대 안 할게요 걱정 마세요!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는 참았지만, 집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들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라는 초심을 절대 잃지 말자!” 다시 예전처럼 학교에서 소외되고, 낙인찍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금까지 교직생활에 임하고 있다.

“한 번의 교직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라고 답할 것이다. 교직을 선택했던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하고, 들어주고, 함께해 주는 것이 진정한 학업중단 예방의 시작이자 끝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해 본다.